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11. 26.(월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
담당과장	이재근 과장(044-203-4360)	담 당 자	윤용석 사무관(044-203-4365) 김성준 사무관(044-203-4369)

산업부 장관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개최 결과

-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의 중추 엔진 -
- 성장사다리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개척 총력 지원 -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11월 26일(월)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**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**을 비롯한 **중견련 회장단과 간담회**를 개최했다.

< 간담회 개요 >

* **일시/장소 :** '18. 11.26(월) 15:00~16:30,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상장회사회관)
* **참 석** : **(산업부)** 성윤모 산업부 장관, 산업혁신성장실장, 중견기업정책관 등
(중견련) 강호갑 중견련 회장, 중견련 회장단(총 13명)

□ 간담회에서 **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**하고 **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**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**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**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,

○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**과감한 규제 혁신**과 **투자·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세제·금융 지원 확대**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.

○ 이와 함께, 중견기업계에서는 ①**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애로사항**과 ②**중소·중견기업들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**, ③**유망 강소·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** 등을 건의했다.

< 주요 건의 내용 >

기업 애로 사항

❶ **최진식 심팩(SIMPAC) 회장, 에스엠(SM)그룹 우오현 대표이사** 등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**탄력적 근로시간제** 단위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 부담이 가중됨을 지적하고, 중소·중견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**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다.**

❷ **삼강엠앤티 송무석 회장은** 조선 보증지원 대책이 **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집행**될 수 있도록 하고, **보증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확대**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.

❸ **인지컨트롤스 정구용 회장**은 최근 상법, 공정거래법 등의 **규제 법안들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**할 우려가 큼을 강조하고,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.

❹ **이에이치씨 구자영 대표이사**는 현행 「대·중소 상생협력법」에 따른 **사업조정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**하고, **신청 남용 방지, 중견기업계 의견반영 확대, 조사 공정성 강화** 등을 건의했다.

❺ **한글과컴퓨터 이상헌 부회장**은 **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시장 창출**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 마련, 기술·인력 지원,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,

- 인공지능 사업 등 **혁신적 제품·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**하기 위해 **공공입찰시 사업수행(실적) 평가 요건을 완화**하는 등 신사업 진출 진입장벽을 완화해 주기를 요청했다.

중소.중견 성장 걸림돌

❻ **제너시스 비비큐(BBQ) 김태천 부회장**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**객관적인 신청인 기준 마련과 심의기관 구성이 필요**함을 강조했다.

- 아울러, **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**가 특정 **업종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의 성장에 부담**으로 작용함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건의했다.

강소.중견 성장 촉진

❼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은 **섬유·패션기업들은 남북 경협에 큰 관심**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, 향후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**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남북 경협 참여기업 지원** 등을 요청했다.

❽ **남성 윤성호 대표이사**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보강하고 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사 브랜드 보유 기업에 대한 **수출·연구개발(R&D)·금융 등 지원 확대**를 건의했다.

□ **성윤모 장관**은 중견기업계에서 건의한 과제들에 대해 **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중소·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**하고,

○ 중견기업들이 **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창출**하고, **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**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.

○ 아울러, 산업부는 중소·중견기업의 동반자로서 **우리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**하고, **혁신형 강소·중견기업을 집중 육성**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윤용석 사무관(044-203-4365) 또는 김성준 사무관(044-203-43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